

해외거주 한인의 주공간 사용 및 주생활 분석을 통해 본 주거문화의 비교 고찰

- 호주(Australia)와 캐나다(Canada)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f Housing Culture of Korean Immigrants through Analysis of
Living Arrangement in Australia and Canada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 전공
연구교수 이영심

Major Consumer & Housing Studies, Catholic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 Young Shim Lee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결과해석 및 논의 |
| II. 연구범위와 방법 | V. 요약 및 결론 |
| III. 문헌고찰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domestic living of Korean immigrants in Australia and Canada who have the same cultural background for comparative study. For this, usage of domestic space and living style in housing of 52 Korean households in Melbourne of Australia and 32 Korean households in the region of Waterloo of Canada were analyzed. Ethnographic research with questionnaire were used. Results of the research were as follows. 1. Korean immigrants in each countries were living in houses which was built by company of Australia and Canada. 44.2% of Korean immigrants in Australia were using L+D · K and 53.1% of Korean immigrants in Canada were using L · D · K. 2. Laundry was indispensable for Korean immigrants in both countries and they all wanted to use the laundry as a utility room which could dry, ironing and so on. 3. Drain hole on the floor of the bathroom was not indispensable for most Korean immigrants in both countries for hygienic reason. 4. Korean immigrants in both countries were ironing in master bedroom and they all wanted to separate it from there through renovation and extension and so on. 5. Korean immigrants in Canada were more active to use the formal lounge which has been planned as a traditional element of western house. 6. The seating style of Korean immigrants in both countries belong to chair-seating style mostly. But it was clear that they were making Kimchi with floor seating style in both countries. 7. A level of satisfaction about using carpet was not high for Korean immigrants in

Corresponding Author : Young Shim Lee, Major Consumer & Housing Studies, Catholic University 43-1 Yokgok 2-dong, Wonmi-gu, Bucheon city, 420-743, Korea Tel: +82-2-2164-4836 Fax: +82-2-2164-4301 E-mail: yslee99@hanafos.com

both countries cause of uneasiness to clean and it was considered to relate to the floor seating style of them. 8. Almost Korean immigrants were took off the shoes inside of the house and they had shoes cabinet beside the entrance or basement usually. 9. The most popular heating system was ducted heating in both countries. The level of satisfaction about this was different for Korean immigrants in Australia and Canada but most desirable heating system was Ondol for them in both countries commonly.

주제어(Key Words): 비교연구(comparative study), 문화적 배경(cultural background), 교민(Korean immigrants), 주공간(domestic space), 기거 양식(seating style), 전통적 요소(traditional element), 입식(chair-seating style), 좌식(floor-seating style), 온돌(Ondol)

I. 서 론

일정 지역의 주거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에는 해당 지역의 자연 환경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주거형태와 주생활 양식 등으로 표현되는 주거문화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특정 지역의 전통(tradition)으로 변화, 발전하며 이는 주거 이동과 같은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그 중심 요소가 지속되는 특성이 있다. 정보통신 기술과 교통의 발달 그리고 개방화에 힘입어 우리의 생활환경은 점차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각 지역의 주거문화 역시 문화변용(assimilation) 혹은 문화접촉(culture contact)을 통해 그 범위와 내용이 변화하고 있다. 주거의 형태와 구성이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또한 문화와 환경 사이의 관계를 반영한다는 연구(Aragones, Francescato and Garling, 2002) 결과는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최근 각 문화권 간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상호 교류를 통해 형성되는 새로운 주거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각기 다른 특질로 구성되는 자(自)문화의 고유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연구의 필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이는 각기 다른 주거문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변화의 가능성을 평가함으로서 앞으로 보다 다양한 주거를 예측하고 계획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예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교민의 주생활을 분석하여 타(他) 주거문화에 대한 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전통으로서의 주거문화 요소를 파악하고자 한 연구가 있다(이영심, 2006; 이희봉, 1988; 정무웅, 1988; 조성희, 1996). 이현정(1992), 박선희(2003) 등은 해외거주 교민의 생활양식을 분석하여 이들의 주거 아이덴티티(Identity)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도영(1998)은 해외거주 교민의 주거 조절 분석을 통해 이들의 전통 문화적인 주거욕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외에 우리나라와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기의 주거환경에 대한 정서적인 경험이 현재 거주공간에서의 개인 영역화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문화적인 관점에서 파악한 연구가 있다(김원필, 이기현, 2003).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교민의 주공간 사용방식, 좌식 정도, 전통적인 물품 소유 및 사용 정도 등을 고찰하였고 이를 통하여 거주지의 이동에 따른 주거요소의 지속과 변용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주거문화 연구가 거주자의 생활에 대한 탐색이라는 점에서 보았을 때 주거 및 주생활에 대한 직접 관찰과 거주자에 대한 면담은 질적인 면에서 보다 풍부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주거요소 외에 주택설비, 바닥재 구성, 난방방식 등의 요소를 보완하여 주생활을 관찰하고 거주자와 면담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한편 스스로의 주거문화를 타(他) 지역의 경우와 비교하여 자(自)문화에 적합한 주거계획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가 다양한 지역에서 시도되었다. 로렌스(1982)는 영국과 호주의 주택을 비교 문화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주공간 계획과 사용상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이현정과 Parrott(2004)는 미국 주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주자들의 만족 정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일본의 리슈코 오자키(Ritsuko Ozaki, 2002)는 비교 문화적인 관점에서 영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의 주생활을 분석하여 문화가 주택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리슈코 오자키(2002)와 로렌스(1982)의 연구는 각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거주자의 주생활을 분석, 비교한 것이며 이현정과 Parrott(2004)의 연구는 동일한 주거에서 생활하는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거주자들의 주생활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로렌스는 관찰과 면담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나 그 조사 항목이 조리 및 식사 공간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현정과 Parrott(2004) 그리고 리슈코 오자키(2002)의 연구는 주거 설비와 의장 등에 조사 항목이 한정되어 있고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연구는 본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현재 각기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동일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거주자들의 주생활에 관한 비교 고찰과는 그 연구 방법과 연구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다. 자(自)문화에서 전통으로서의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요소 그리고 타(他) 문화와의 접촉과 교류를 통한 변화의 가능성

이 있는 요소에 대한 분석은 고유한 주거문화 뿐 아니라 앞으로의 변화에 대비한 주택계획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포포트(Rapport, 1960) 역시 고유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 형태와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관련되어 비교 문화적인 관점에서 주생활 행태 및 주거형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언급한 바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의 주생활에 대한 분석은 타(他)문화 속에서 전통으로서의 자(自)문화를 평가하는 한편 타 문화에 대한 수용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호주에 거주하는 교민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교민의 주공간 사용 및 주생활을 분석하여 호주와 캐나다는 지배 문화 속에서의 전통 문화에 대한 지속 정도를 평가하고 전통 문화의 타(他)문화와의 접촉을 통한 조절 그리고 타(他)문화에 대한 동화 정도를 비교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학문적인 면에서 호주와 캐나다의 주거 및 주거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각기 다른 지역과 문화 안에서 생활하는 교민들의 주거문화를 비교 고찰하는 의미가 있다.

II.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 지역은 호주와 캐나다 두 곳으로서 두 지역 모두 넓은 영토에 비하여 인구 밀도가 낮고 다(多)민족 국가로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두 지역의 한인 이주가 1970년대-1980년대 사이에 본격화되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현지에서의 정착화 정도가 유사할 것으로 사료되어 두 지역을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호주의 경우 빅토리아(Victoria)주에 위치한 멜버른(Melbourne)을 연구대상 지역으로 하여 2004년 7월 19일 - 9월 24일 사이에 수행하였으며 캐나다는 온타리오(Ontario)주에 위치한 워털루 지역(Region of Waterloo)¹⁾을 연구대상 지역으로 하여 2005년 12월 29일 - 2006년 2월 12일 사이에 수행하였고 연구 방법은 모두 현장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현장연구는 문화인류학에 근원을 둔 문화기술학(Ethnography)의 방법과 질문지법을 병행하였다. 이에 따라 멜버른에서 52가정 그리고 워털루 지역에서 32가정을 각각 방문하여 관찰과 면담을 하였고 각 주택에 대한 사진 촬영을 하였으며 질문지의 응답에 대한 백분율과 평균값을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거문화 간의 비교를 위한 평가항목은 각 가정의 LDK 연결 유형 및 기타 공간의 평면 구성, 각 실의 주생활 내용, 각 실의 바닥재 및 난방방식 등의 내용이다. 일부 문항에서 평가한 조사대상자의 만족 정도는 아주 만족한다(5점)-아주 불만족하다(1점)의 5단계로 분류하여 평균 점

수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호주와 캐나다에 거주하는 교민 일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를 전체 교민으로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음을 밝힌다.

III. 문헌고찰

1. 연구대상 지역의 자연 기후와 주택 특성

1) 호주의 자연기후와 주택 특성

호주는 면적 770만 평방킬로미터의 대륙 섬으로 남반구에 위치해 있다. 북부지역의 80%와 서부지역의 40%가 열대 기후에 속해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온화한 온대기후이다. 현재 호주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 정부로 구성된 연방 민주 국가이며 6개의 주(빅토리아, 뉴 사우스 웨일즈, 퀸스랜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타즈마니아 등)와 2개의 특별구(노던 테리토리, 캐피탈 테리토리 등)로 구성되어 있다. 호주의 인구는 약 1천 8백만 명이며 인구의 대부분이 동부 및 동남부 해안 평원 지역을 따라 발달한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총인구의 1/3정도가 뉴 사우스 웨일즈 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1/4정도가 빅토리아 주에 거주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인 멜버른(Melbourne)이 위치한 빅토리아(Victoria)주는 22만 7천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에 인구는 약 4백 6십만 명으로 호주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곳으로서 날씨의 변화가 심하고 시간별 기온의 차이가 매우 큰 특성이 있다.

멜버른 지역의 주택유형은 81.4%가 단독주택이며 약 70%의 거주자가 자기 소유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Melbourne in Fact, 2001). 멜버른 지역의 주택은 90% 이상이 브릭 베니어(Brick Veneer)형식인데 이는 건물의 뼈대를 나무(timber stud)로 세우고 외벽은 한 층의 벽돌로 내벽은 플라스터(plaster)로 마감하는 형식으로서 저렴한 비용으로 짧은 기간에 지을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이 외의 주택은 벽돌(Solid Brick House) 혹은 나무(Weatherboard House)를 사용한 주택 등이다(Danis Hogan, 2005)²⁾ 멜버른 지역의 한인 이민은 1970년대 초에 정부 장학생의 이주를 시작으로 1975년에 월

1) 워털루 지역(Region of Waterloo)은 캠브리지(Cambridge), 키치너(Kitchener) 워털루(Waterloo) 등의 시(City)와 월мот(Wilmot), 울워치(Woolwich) 등의 타운(Town)으로 구성되며 인구는 2005년 말 현재 497,600명임(2005 Community Profile, Canada).

2) 빅토리아주 건축위원회(Building Commission)소속 기술연구부(Technical & Research Services) 매니저의 인터뷰 내용임.

남이 공산화된 이후에는 재월파견 기술자들이 이주하는 등 의 정도로 그 수가 미미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이민 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교민의 수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멜버른에 거주하는 교민은 약 1만 명 정도이며 교민들 은 약 70% 정도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³⁾

2) 캐나다의 자연기후와 주택 특성

캐나다는 면적이 약 997만 평방킬로미터로 북아메리카 대륙의 40%를 차지하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다. 1608년 프랑스, 1628년 영국 등의 식민지 진출을 거쳐 1867년에 영국 자치령으로 통합되었으며 1982년에 캐나다 최초의 헌법이 완성되면서 완전한 독립 국가를 이루게 되었다. 캐나다는 현재 10개의 주(魁北克, 온타리오, 노바스코샤, 뉴브런스, 매니토바, 브리티시 콜롬비아, 프린스에드워드섬, 앨버타, 사스캐처원, 뉴펀들랜드 등)와 3개의 준주 (Territory: 유콘, 노스웨스트, 누나부트 등)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계절의 구분이 뚜렷하며 여름과 겨울의 온도는 한국과 대체로 비슷하나 본 연구의 조사대상 지역인 동부는 대륙성 기후와 대서양 기후가 합쳐져 기후가 불안정하여 겨울에는 몹시 춥고 눈이 많으며 봄, 여름에는 안개가 끼는 날이 많다.

캐나다의 인구는 약 2천 9백만 명이며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약 78% 정도인데 비해 인구 밀도는 약 2.9명/km²로 매우 낮은 편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지역인 온타리오(Ontario)주는 13개의 주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북쪽은 대부분 대자연의 형태로 남아있고 남쪽에 87% 이상의 인구와 대부분의 산업이 집중되어 있다. 캐나다의 수도인 오타와(Ottawa)가 위치해 있는 온타리오 주는 캐나다의 정치와 경제, 사회의 중심지이며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캐나다 지역의 한인 이민은 1960년대에 소수의 유학생과 전문직 종사자들로 시작되었다. 이 즈음에 한국에서의 인구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남미 등지로의 집단 이주가 실시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 역시 1970년대 초부터 한인 이주 가 대규모로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한인 이주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지역인 워털루 지역(region of Waterloo)의 주택유형은 단독주택이 56.7%, 그리고 저층아파트(14.3%), 고층아파트(10.3%), 타운하우스(9.4%)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워털루 지역 거주민의 67.5%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Statistics Canada, 2001 Census).

IV. 결과해석 및 논의

1.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인 호주 교민과 캐나다 교민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인 주부의 연령은 호주의 경우 40세 미만이 55.8% 40~49세 미만이 36.5%로 30대와 40대가 대부분이었고 평균연령은 38.9세였다. 조사대상 캐나다 교민은 40~49세 미만이 53.1%로 가장 많았으며 50세 이상이 28.1%, 40세 미만 18.8%로 평균연령은 46.8세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변인	분류	호주 교민 f(%)	캐나다 교민 f(%)
주부	40세 미만	29(55.8)	6(18.8)
	40~49세	19(36.5)	17(53.1)
	50세 이상	4(7.7)	9(28.1)
계		52(100)	32(100)
가족수	4명 미만	22(42.3)	9(28.1)
	4명	22(42.3)	16(50.0)
	5명 이상	8(15.4)	7(21.9)
계		52(100)	32(100)
가족 형태	부부 + 자녀	33(63.5)	24(75.0)
	부부	8(15.4)	3(9.4)
	부부+자녀+조부모	4(7.7)	5(15.6)
	부부+자녀+기타인	7(13.4)	.
계		52(100)	32(100)
학력	대학졸업 이하	17(32.7)	10(31.2)
	대학졸업 이상	35(67.3)	22(68.8)
계		52(100)	32(100)
남편 직업	생산직	2(3.9)	1(3.4)
	판매·서비스직	18(35.3)	15(51.7)
	사무직	6(11.8)	4(13.8)
	행정·관리직	4(7.8)	.
	전문직	14(27.5)	3(10.3)
	기타	7(13.7)	6(20.8)
	계	51(100)	29(100)
소득	5만불 미만	22(44.0)	6(20.0)
	5~7만불 미만	13(26.0)	15(50.0)
	7~9만불 미만	11(22.0)	4(13.3)
	9만불 이상	4(8.0)	5(16.7)
계		50(100)	32(100)
이민 연수	5년이하	26(50.0)	6(18.7)
	6~10년 미만	4(7.7)	8(25.0)
	10~20년 미만	8(15.4)	10(31.3)
	20년 이상	14(26.9)	8(25.0)
계		52(100)	32(100)

3) 이광석의 면담 내용임 : 멜버른에 이주한 지 20년째인 교민으로 주택의 종, 개축 및 주택 보수업에 종사하고 있음.

평균 가족 수는 호주 교민은 3.6명, 캐나다 교민은 3.9명이었으며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형태가 조사대상 호주 교민과 캐나다 교민 각각 63.5%, 75.0%였다. 주부의 학력은 조사대상 호주 교민의 경우 67.3%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고 현재 대부분 주부였으며 조사대상 캐나다 교민은 68.8%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고 자영업 종사자와 주부가 각각 50% 씩이었다. 조사대상 호주와 캐나다 교민 모두 남편의 직업은 판매·서비스직이 각각 35.3%, 51.7% 등으로 가장 많았다. 소득은 조사대상 호주 교민은 연 5만불 미만이 44.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5만불~7만불 미만(26%)이었다. 조사대상 캐나다 교민은 연 5만불~7만불 미만이 50.0%였으며 다음은 5만불 미만(20%)으로 호주와 캐나다의 조사대상자들 대부분이 중산층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⁴⁾ 이민 연수는 호주 교민의 경우 5년 이하(50%), 캐나다 교민은 10년~20년 미만(31.3%)이 가장 많았다.

주택형태는 조사대상 호주 주택은 단독주택(51.9%)이 가장 많았고 조사대상 캐나다 주택은 2사례 외에는 모두 단독주택(93.8%)이었다(표 2). 주택의 소유 상태는 조사대상 호

주 교민이 주택 소유가 51.9% 그리고 임대가 48.1%인 반면 조사대상 캐나다 교민은 모두 주택 소유자였다.⁵⁾ 조사대상 호주 주택의 침실 수는 3개(50%)가 가장 많았으며 조사대상 캐나다 주택은 4개 이상이 53.1%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 캐나다 주택의 건축 경과년수는 평균 27.7년이었으며 조사대상 캐나다 주택은 평균 13.4년이었다.⁶⁾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사대상 호주 교민의 이민연수는 24년으로서 2사례 외에는 모두 단독주택이었다. 이를 단독주택의 건축경과년수는 평균 44.5년으로서 이민 연수가 긴 경우 오래된 단독주택의 소유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대상 캐나다 교민은 새로 지은 주택을 선호하였는데 주택의 평면과 설비, 마감재 등을 스스로 선정한 경우가 전체의 40.6%(13사례)였다.

2. 평면 구성

1) 거실·식사실·부엌의 연결유형과 평가

조사대상 호주 주택과 캐나다 주택의 거실, 식사실, 부엌의 연결 유형은 표 3과 같이 분류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호주 주택과 캐나다 주택은 모두 현지의 건축가 혹은 주택 회사에서 공급한 것으로 조사대상자가 스스로 건축하거나 LDK 연결 유형을 개조한 사례는 없었다. 조사대상 호주 주택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거실이 부엌과 식사실에서 분리되어 있는 형(L+D·K; 44.2%)이었으며 이에 대한 만족은 평균 3.8점이었다(사진 1). L+D·K형은 우리나라 아파트에서 시대에 관계없이 가장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평면구성 방식이며 우리나라 아파트 거주자들의 생활에 가장 부합되는 형태로 보고한 바 있으며(김수현, 1999; 배정민, 정유선, 윤정숙, 2001) 해외 거주 교민의 가장 보편적인 공간사용 방식으로 파악된 바 있다(조성희, 1996). 반면, 조사대상 캐나다 주

〈표 2〉 주택 특성

변 인	분 류	호주 교민 f(%)	캐나다 교민 f(%)
주택 형태	단독주택	27(51.9)	30(93.8)
	유닛(unit)	17(32.7)	.
	타운하우스	4(7.7)	1(3.1)
	아파트	3(5.8)	1(3.1)
	테라스하우스	1(1.9)	.
계		52(100)	32(100)
침실 수	2개 이하	14(26.9)	4(12.5)
	3개	26(50.0)	8(25.0)
	4개 이상	12(23.1)	20(62.5)
	계	52(100)	32(100)
주택 소유 형태	소유	27(51.9)	30(93.8)
	임대	25(48.1)	2(6.2)
계		52(100)	32(100)
건축년수	1년~10년 이하	19(40.4)	19(59.4)
	11년~30년 이하	10(21.3)	12(37.5)
	31년~50년 이하	11(23.4)	1(3.1)
	51년~100년 이하	7(14.9)	.
	계	47(100)	32(100)

주. 유닛: 작은 마당과 주차장이 있는 단층주택 여러 채가 모여 있는 단지의 주택임.

타운하우스: 작은 마당이 있는 2층 주택 여러 채가 모여 있는 단지의 주택임.

테라스 하우스: 호주의 전통 주택으로서 벽을 공유한 1층 혹은 2층 주택들이 한 방향으로 건축된 주택임.

4) 호주 멜버른(Melbourne)의 가구당 연간 소득수준은 52,000불~77,948불(17.2%), 36,400불~51,948불(14.2%), 15,600불~25,948불(13.9%)으로 분포되어 있다(2001년 인구Census). 조사대상 지역의 한인회장은 해당 지역 중산층의 연간 평균소득은 5만불~8만불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캐나다의 경우 조사대상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인 키치너(Kitchener)의 가구당 연간 소득수준은 평균 59,306불이었다(2001년 인구Census). 캐나다 조사대상 지역의 한인회 부회장은 해당 지역 중산층의 연간 평균소득을 5만불~8만불로 제시하였다.

5) 캐나다 교민 조사대상자의 43.7%가 이민 온지 10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주택 가격의 일부로 주택 구입이 가능한 제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이는 주택 소유가 생활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있는 것으로 사료됨.

6) 양 지역의 조사대상 주택의 평균 건축 경과 연수는 15여 년에 이르며 거주자들에 의한 주택개조 및 변형이 이루어진 관계로 각 주택 평면의 시기별 특성 파악이 어려웠음.

택에서 가장 많았던 유형은 거실, 식사실, 부엌이 통합되어 있는 유형(L · D · K; 53.1%)이었으며 이에 대한 만족은 평균 4.2점이었다. 최근 들어 거실, 식사실, 부엌이 통합된 오픈 플랜(open plan)은 캐나다 지역에서 일반적인 유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사진 2).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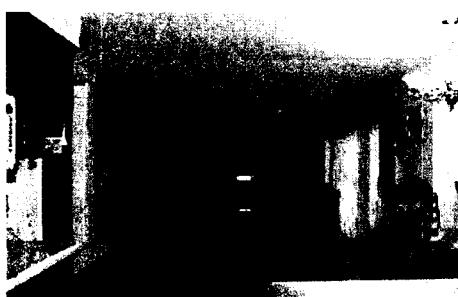
〈표 3〉 거실, 식사실, 부엌의 연결유형과 만족정도

호주 교민		캐나다 교민		
유 형	f(%)	만족 점수 (5점 Likert)	f(%)	만족 점수 (5점 Likert)
L · D · K	17(32.7)	3.9	17(53.1)	4.2
K + L · D	5(9.6)	3.4	·	
L + D · K	23(44.2)	3.6	14(43.8)	4.1
L + D + K	7(13.5)	4.0	·	
D + K · L	·	1(3.1)	5.0	
계	52(100)	32(100)		

주. L · D · K; 거실, 식사실, 부엌이 한 공간에 통합된 형태
K + L · D; 거실과 식사실이 함께있고 부엌이 독립된 형태
L + K · D; 부엌과 식사실이 함께있고 거실이 독립된 형태
L + D + K; 거실, 식사실, 부엌이 각각 독립된 형태
D + K · L; 거실과 부엌이 함께있고 식사실이 독립된 형태



〈사진 1〉거실+부엌, 식사실(L+DK)의 예(호주 K씨댁)



〈사진 2〉 오픈플랜(L · D · K)의 예(캐나다 K씨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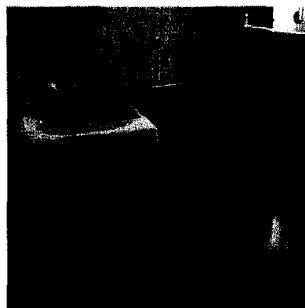
조사대상 호주 교민(80.8%)과 캐나다 교민(87.0%)은 주택의 뒤편에 부엌이 위치하는 것을 선호하였으나 거실과 부엌의 통합에 대한 의견은 차이가 있었다. 즉, 조사대상 호주 교민의 59.6%가 분리를 원했는데 그 이유는 조리 시의 음식 냄새로 아늑한 거실이 되기 힘들고 역시 같은 이유에서 손님 접대가 곤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이는 미국에 거주하는 교민이 거실과 부엌의 통합을 선호하지 않는 것과 공통점이 있다(이희봉, 1998). 반면, 조사대상 캐나다 교민은 70.0%가 거실과 부엌의 통합을 선호하였는데 그 이유는 가사 작업과 가족단란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이는 현재 조사대상 호주 주택에서 L+D · K형이 가장 많았으며 조사대상 캐나다 주택에서는 L · D · K형이 가장 많았던 결과와도 관련성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 캐나다 교민이 조사대상 호주 교민에 비하여 부엌과 거실이 통합된 유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를 선호하는 것은 조사대상 캐나다 교민의 평균 이주년수가 15년으로서 조사대상 호주 교민에 비하여 더 오래 되었고 이에 비례하여 서구식 생활에 더 익숙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부엌과 거실의 통합과 분리의 문제는 조사대상자들의 음식 문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음식 문화는 거주 지역에 따라 본래의 특성을 유지하기도 하나 지역에 따라 타 문화권의 특성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기도 하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부엌과 기타 공간의 연결 형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세탁실의 평가와 요구

조사대상 호주 주택은 5사례 이외에는 모두 독립된 세탁실을 가지고 있었다. 호주에서 세탁실은 전통적으로 별도로 계획되어 왔으며 이는 현대에도 같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Lawrence, 1982)〈사진 3〉. 조사대상 캐나다 주택은 아파트와 타운 하우스의 2사례 외에 단독주택은 모두 독립된 세탁실을 가지고 있었다. 세탁실의 위치는 조사대상 호주 주택은 대부분 부엌 가까이에 그리고 뒷마당으로 나가기 좋은 곳에 위치하였다. 조사대상 캐나다 주택은 세탁 공간이 1층에 있는 경우가 15사례(50%)로 가장 많았으며 지하실이 8사례(26.7%) 그리고 2층에 위치한 경우가 7사례(23.3%)였다.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세탁 공간을 지하실에 두었으나 점차 1층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2층에 계획하는 경우도 많

7) 조사대상 호주 주택의 침실 수는 3개(50.0%), 2개 이하(26.9%), 4개 이상(23.1%) 그리고 캐나다 주택의 침실 수는 4개 이상(62.5%), 3개(25%), 2개 이하(12.5%) 등으로 양 지역의 주택 규모가 동일하지 않은 이유로 해석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음.



〈사진 3〉 손세탁조가 구비된 세탁실(호주 L씨댁)



〈사진 4〉 2층에 위치한 세탁실(캐나다 S씨댁)

아지고 있다(Newspaper of Kitchener, 2006. 3.11)〈사진 4〉. 한편, 세탁실에 대한 만족은 조사대상 호주교민(평균 3.7점)에 비하여 조사대상 캐나다 교민(평균 3.0점)이 약간 낮았는데 이는 지하실에 위치한 경우 때문으로 사료되었다. 세탁실에 대한 요구는 양 지역의 조사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세탁실에 건조대를 두어 세탁물 건조를 하고 다림질을 할 수 있는 것 등이었다. 조사대상 캐나다 교민은 1사례 이외에 모두 건조기(dryer)를 소유하고 있으나 11사례(34.4%)가 실내에서 빨래 건조대를 사용하며 또한 이를 지속할 것이라고 하여 기계를 사용하는 건조 방식에 익숙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탁실에서 다림질 작업을 원하는 것은 현재 침실 등에서의 다림질로 인한 주거 공간의 혼잡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 결과 양 지역의 조사대상자 모두 유틸리티 룸/utility room)으로서의 세탁실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특히 손세탁조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며 이에 대한 요구 정도가 높았던 결과는 주거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생활 양식이 변화한 예로 볼 수 있다.

3) 욕실의 평가와 요구

조사대상 호주 주택에서 욕조, 세면대, 변기가 한 공간에 있는 형태는 전체의 15.4%(8사례)에 불과하였고 대부분 욕실과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었다. 조사대상 캐나다 주택은 욕실

이 3개인 사례(62.5%)가 가장 많았는데 그 구성은 세면대, 변기, 욕조 1실 + 변기, 세면대 1실 + 세면대, 변기, 샤워부스 1실이 일반적이었다. 조사대상 캐나다 주택에서 지하 공간을 꾸민 13사례(40.6%) 중 6사례(46.2%)가 지하에 욕실을 계획하였는데 그 형태는 욕조와 샤워부스, 세면대, 변기가 다양하게 조합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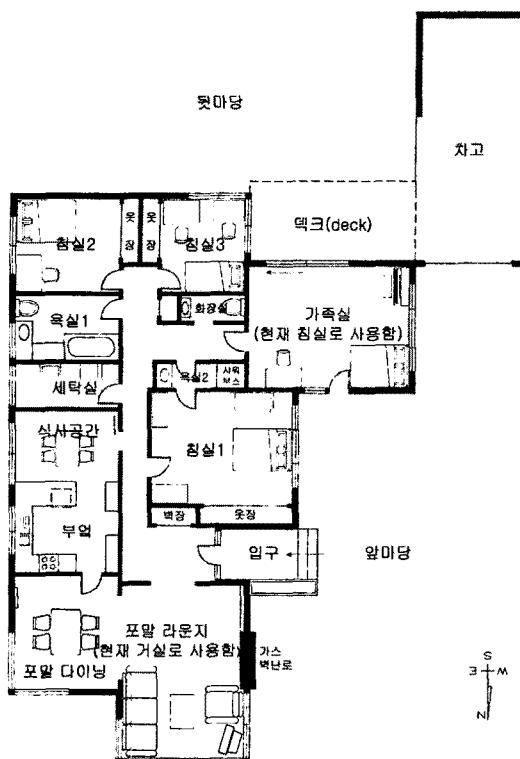
조사대상 호주 교민은 욕실 수가 충분한 것을 희망하였는데 욕실 수는 주택 가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여분의 욕실이나 화장실을 추가하는 개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대상 캐나다 교민은 욕실 수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없었는데 이는 이들의 평균 욕실 수가 2.8개로서 이들의 평균 가족원 수가 3.9명임을 감안하였을 때 욕실 사용에서 특별한 불편함이 없기 때문으로 사료되었다. 조사대상 호주 주택의 50 사례(96.2%) 그리고 조사대상 캐나다 주택 모두 욕실 바닥에 배수구가 없었다. 그러나 조사대상 호주 교민의 34사례(65.4%), 캐나다 교민의 24사례(75.0%)가 배수구가 필요 없다고 함으로써 현재의 주거 환경에 적응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양 지역의 교민 모두 처음에는 불편했으나 바닥이 미끄럽지 않고 습기가 없으며 냄새가 올라오지 않아 더 위생적이라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주거 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습이 변화한 예로서 평가되었다.

4) 공간의 용도변경 및 개조

(1) 공간의 용도 변경

현재 사용하는 공간의 용도를 변경한 사례는 포말 라운지(formal lounge: 포말 리빙룸)⁸⁾와 가족실(family room), 다이닝 룸(dining room)에서 볼 수 있었다. 조사대상 호주 주택의 경우 포말 라운지가 있는 6사례(11.5%) 중 2사례가 가족실 혹은 다용도 공간으로 용도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다(그림 1). 조사대상 캐나다 주택은 21사례(65.6%)가 포말 라운지가 있었는데 이 중 3사례가 가족실과 침실 그리고 피아노 교습을 위한 공간 등으로 바꿔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 호주 주택에서 가족실(family room)이 있는 2사례(3.9%) 모두 침실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었으며 또한 2사례가 다이닝룸(dining room)을 침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캐나다 주택은 1사례가 가족실을 식사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조사대상 호주 교민과 캐나다 교민은 포말

8) 호주와 캐나다 등 서구의 주택은 전통적으로 주택 입구에 손님을 맞기 위한 공간을 계획해 왔는데 이는 일반 거실(living room) 혹은 가족실(family room)과 다른 것으로 최근에는 규모가 큰 주택에 계획하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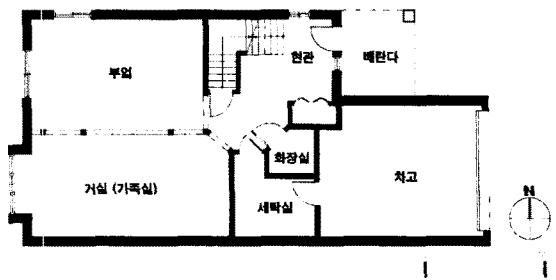
<그림 1> 주공간의 용도변경 사례(호주 A씨댁)

라운지와 가족실을 구분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가족단란과 손님접대를 한 공간에서 하였고 식사 또한 다이닝 룸 보다는 부엌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와 같이 조사대상 호주 교민과 캐나다 교민이 주거 공간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이들의 주거문화와 각 조사대상 지역의 주거문화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전통적인 주생활 문화가 공간 사용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예는 기타 지역의 교민에게서도 관찰된 바 있다(이희봉, 1998; 조성희,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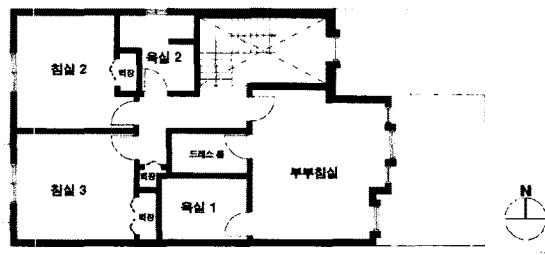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호주 교민에 비하여 조사대상 캐나다 교민이 계획된 공간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조사대상 캐나다 교민의 경우 포말 라운지가 있는 경우가 호주 교민에 비하여 더 많았으며 주공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사례가 더 적었던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 캐나다 교민의 문화 접촉(culture contact)을 통한 변화가 조사대상 호주 교민에 비하여 더 큰 것으로 해석되었다.

(2) 개조와 희망 개조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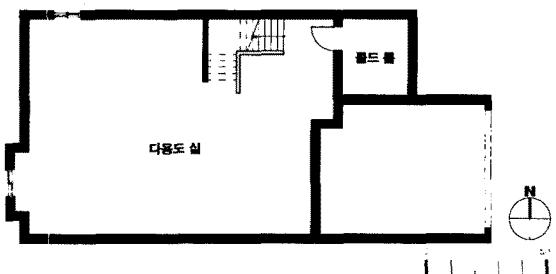
조사대상 호주 주택 중 개조를 한 경우는 모두 10사례



<그림 2-1> 캐나다 주택의 평면도 1층 : H씨댁



<그림 2-2> 캐나다 주택의 평면도 2층 : H씨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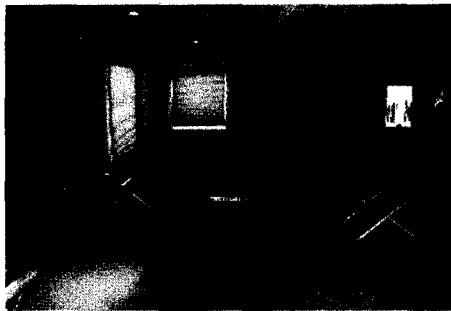
<그림 2-3> 캐나다 주택의 평면도 지하층 : H씨댁

* 콜드룸(cold room)은 바닥 한쪽에 외부와 연결된 구멍을 내어 공기가 항상 순환하도록 만든 곳으로 차게 저장해야 하는 식품 등을 주로 보관한다.

(19.2%)였다. 그 내용은 욕실과 관련한 것이 가장 많았는데 욕실 추가하기, 화장실과 세탁실의 분리, 화장실에 세면대와 샤워기의 추가 등이었다. 또한 부엌관련 개조는 부엌의 벽을 없애 거실과 통합하거나 부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 등이었다. 이 외에 2층 증축이나 세탁실을 넓히는 것 등이 있었다. 캐나다의 경우 조사대상 지역은 겨울에 매우 춥고 눈이 많이 와 주택의 기초를 깊게 파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지하 공간이 생긴다. 주택 신축 시 지하 공간은 기본 구조재와 단열재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주택 구매자의 경제적인 여건과 취향에 따라 바닥과 벽을 마감하고 장식하는 것이 보통이다(그림 2-1, 2, 3). 조사 대상 캐나다 주택 중 지하실의 바닥과 벽, 천장을 마감하고 조명을 갖추어 지하실을 꾸민 경우는 전체의 13사례



〈사진 5〉 지하 공간을 가족실로 만든 사례(캐나다 K씨댁)



〈사진 6〉 지하 공간을 운동실로 만든 사례(캐나다 L씨댁)

(40.6%)였는데 공부방 및 서재로 꾸민 경우가 2사례였으며 탁구대 등이 있는 운동실과 놀이 공간 등으로 꾸민 경우가 4사례 그리고 침실 및 가족실로 꾸민 경우 등이 7사례 있었다(사진 5)〈사진 6〉.⁹⁾ 조사대상 호주 교민이 희망하는 개조는 주택을 연장(extension)하여 침실 혹은 선룸(sunroom)을 만들거나 가족실(거실), 침실, 부엌 등을 넓히는 것이었으며 조사대상 캐나다 교민 역시 지하실을 마감하는 것 그리고 포말 리빙룸을 없애고 가족실을 넓히는 것 등으로서 양 지역 모두 주택 면적과 관련한 개조를 희망하고 있었다.

3. 공간별 사용

조사대상 호주와 캐나다 교민들의 각 공간별 주생활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양 지역 모두 거실에서 행하는 활동은 공통으로 가족단란과 독서, 아이놀이 등이었으며 조사대상 호주 교민의 21사례(40.1%)는 거실에서 다림질을 하였다. 식사실을 포함한 부엌에서의 주요 활동은 양 지역 모두 식사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단란 그리고 친구

⁹⁾ 지하실을 마감(finished)하는데 드는 비용은 보통 250ft²에 20,000불 정도인데 지하실 마감 시에는 별도의 재산세가 부과됨. 지하실을 마감하지 않은 경우는 보통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수납하는 창고로 활용함.

〈표 4〉 각 공간별 주생활 내용

주생활내용	공간		거실(f)		부엌(f) (식사실)		부부침실(f)		자녀침실(f)	
	주생활내용	공간	A(53)	C(32)	A(53)	C(32)	A(53)	C(32)	A(53)	C(32)
취침	취침		7(13.2)	10(31.3)	.	.	50(94)	32(100)	41(7.7)	32(100)
가족단란	가족단란		45(84.9)	22(68.8)	34(64.2)	10(31.3)	10(19)	1(3.1)	3(5.7)	1(3.1)
아이놀이	아이놀이		33(62.3)	11(34.4)	7(13.2)	3(9.4)	8(15)	1(3.1)	29(55)	12(37.5)
식사	식사		17(32.1)	14(43.8)	52(98.1)	32(100)	2(3.7)	.	3(5.7)	2(6.2)
자녀공부	자녀공부		14(26.4)	7(21.9)	14(26.4)	3(9.4)	7(13.2)	1(3.1)	36(68)	17(53.1)
접대(친구)	접대(친구)		16(30.2)	16(50.0)	34(64.2)	32(100)
접대(공식)	접대(공식)		30(56.6)	30(93.8)	19(35.9)	19(59)
손님취침	손님취침		4(7.6)	4(12.5)	.	.	2(3.7)	.	22(41.5)	3(9.4)
다림질	다림질		21(39.6)	3(9.4)	10(18.9)	1(3.1)	6(11.3)	9(28.1)	2(3.7)	1(3.1)
재봉	재봉		5(9.4)	1(3.1)	2(3.8)	.	3(5.7)	7(21.9)	1(1.9)	.
취미	취미		32(60.4)	8(25.0)	7(13.2)	2(6.2)	10(19)	5(15.5)	21(39.6)	5(15.5)
독서	독서		42(79.3)	11(34.4)	10(18.9)	5(15.5)	32(60.4)	13(40.6)	36(67.9)	16(50.0)
운동	운동		15(28.3)	4(12.5)	1(1.9)	.	5(9.4)	6(18.8)	2(3.7)	2(6.2)

주. 해당 주생활을 하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였음.

접대 등이었다. 조사대상 호주 교민은 식사실에서 공부나 다림질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기타 지역의 교민들이 부엌의 식탁을 가족대화와 아이공부 그리고 손님접대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결과와 유사하였다(정무웅, 1988; 조성희, 1996).

부부침실에서의 주요 활동은 양 지역 모두 부부 취침과 독서 등이었는데 공통으로 부부침실에서 다림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침실은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안방에서 다림질 및 빨래정돈 등의 가사행위를 하는 것은 기타 지역의 교민들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난 바 있다(조성희, 1996). 자녀 침실에서는 자녀취침 및 아이놀이와 자녀공부, 독서 등이 공통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호주와 캐나다 양 지역의 단독주택의 경우 마당에서의 활동은 가족단란 시간의 연장으로서 바비큐와 아이놀이 등이 그 중심이며 양국 교민들 대부분이 뒷마당에 깻잎, 상추, 부추 등을 가꾸는 텃밭을 가지고 있었다.

조사대상 호주 교민들은 각 실의 면적이 대체로 작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각 공간별 주생활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실에서 행하는 다양한 활동이 그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선행 연구에서도 해외 거주 교민들이 한 공간에서 다양한 활

동을 함으로써 공간의 협소함을 느끼는 현상이 보고된 바 있다(이영심, 2006; 이희봉, 1998; 정무웅, 1988). 조사대상 캐나다 교민들이 세탁실의 면적이 더 넓을 것 그리고 세탁실에서 다림질을 할 수 있을 것 등을 원하는 것은 현재 부부침실에서 행하는 가사 작업에 불만족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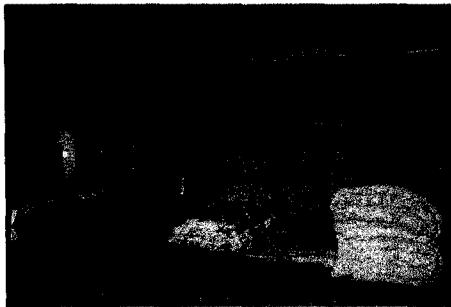
4. 활동별 입식과 좌식

양 지역 조사대상자들의 활동에 대한 입식과 좌식 정도는 <표 5>와 같다. 가족취침은 양 지역에서 1사례씩을 제외하고 모두 침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선행 연구에서도 해외 지역 교민의 취침양식이 입식으로 파악된 바 있다(조성희, 1996). 그러나 손님취침은 조사대상 호주 교민이 요나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좌식인 반면 조사대상 캐나다 교민은 침대를 사용하고 있었다(사진 7)(사진 8). 가사작업 중 다림질은 조사대상 호주 교민의 66.7%가 입식 다림질대 혹은 식탁을 사용하는 반면 조사대상 캐나다 교민은 입식(50%)과 좌식(46.4%)의 비율이 유사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캐나다 교민의 다림질이 좌식 성향으로 파악된 바 있는데(박선희, 2003) 이는 조사대상자의 연령에 의거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본 연구의 조사

<표 5> 활동별 좌식과 입식 정도

주생활내용	기저양식(f)	호주 교민(53)			캐나다 교민(32)		
		좌식	입식	겸용	좌식	입식	겸용
취침(가족)		1(1.9)	50(94.3)	·	1(3.1)	30(93.7)	1(3.1)
취침(손님)		35(66.0)	15(28.3)	·	5(15.5)	22(68.7)	·
화장		4(7.6)	47(88.6)	·		32(100)	·
재봉		8(15)	37(69.8)	·	2(6.2)	17(21.8)	1(3.1)
TV시청		14(26.4)	20(37.7)	18(33.9)	7(21.8)	21(65.6)	3(9.3)
독서		5(9.4)	45(84.9)	·	4(12.4)	24(75.0)	2(6.2)
가계부정리		3(5.6)	43(81.1)	·	2(6.2)	15(46.8)	·
손님접대(친구)		7(13.2)	45(84.9)	·	2(6.2)	30(93.7)	·
손님접대(공식)		4(7.6)	46(86.7)	·	2(6.2)	30(93.7)	·
가족식사		2(3.8)	50(94.3)	·		32(100)	·
손님과 식사		17(32.0)	35(66.0)	·	8(25.0)	9(28.1)	15(46.8)
다림질		15(28.3)	34(64.1)	2(3.8)	13(40.6)	14(43.7)	1(3.1)
세탁물개기		15(28.3)	36(67.9)	·	16(50.0)	15(46.8)	1(3.1)
손빨래		3(5.6)	35(66.0)	·		8(25.0)	·
김치담그기(배추씻기)		8(15)	34(64.1)	·	5(15.5)	18(56.2)	·
김치담그기(버무리기)		27(50.9)	13(24.5)	·	17(21.8)	7(21.8)	·
야채다듬기		2(3.8)	45(84.9)	·	4(12.4)	28(87.5)	·

* 해당 주생활을 하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였다.



〈사진 7〉 좌식으로 꾸민 손님방의 예(호주 B씨댁)



〈사진 8〉 좌식과 입식 겸용의 포말 라운지의 예(캐나다 Y씨댁)

대상 호주 교민은 30대가 55.8%인 반면 조사대상 캐나다 교민은 40대가 53.1%이며 선행 연구(박선희, 2003) 역시 40대와 50대가 74.4%로서 나이가 많은 경우 입식보다는 좌식에 익숙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탁물 개기는 작업은 조사대상 호주 교민은 대부분 소파에 앉는 입식(70.6%)이었으며 재봉 작업 역시 입식(82.2%)이었다. 조사대상 캐나다 교민은 세탁물 개기는 작업에서 좌식(50%)과 입식(46.9%)의 비율이 유사하였으며 재봉은 대부분 입식(85%)으로 하였다. 손빨래는 조사대상 호주 교민의 78.9%, 조사대상 캐나다 교민의 88%가 손세탁조를 사용하고 있었다. 양 지역의 교민들은 대부분 김치를 담가 먹고 있었는데 김치 담그는 행위는 양 지역 모두 좌식과 입식을 혼용하고 있었다. 즉, 배추 씻기는 조사대상 호주 교민의 34사례(81%), 캐나다 교민의 18사례(78.3%)가 부엌의 싱크대에서 서서 하였고 벼무리는 작업은 조사대상 호주 교민의 27사례(67.5%), 캐나다 교민의 17사례(70.8%)가 부엌 바닥에 앉아서 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도 해외 교민의 가사 행위 중 특히 김치 담그기는 부엌 바닥에서 좌식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박선희, 2003; 이희봉, 1998). 야채 다듬기는 양 지역의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싱크대에 서서 하였으며 화장 역시 욕실에 서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가족의 TV시청은 조사대상 호주 교민은 소파에 앉는 경우가 20사례(38.5%)로 가장 많았으며 소파와 바닥 겸용이 18사례(34.6%), 바닥에 앉는 경우가 14사례(26.9%)였다. 조사대상 캐나다 교민은 소파 사용이 21사례(67.7%)로 가장 많았으며 바닥에 앉는 경우가 7사례(22.6%) 그리고 소파와 바닥의 겸용이 3사례(9.7%)로 역시 입식 위주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기타 지역의 교민이 휴식 시간이나 가족 모임을 대부분 좌식으로 하는 것과 다른 것이다(박선희, 2003; 이희봉, 1998; 조성희, 1996). 양 지역의 조사대상자 모두 독서는 침대 혹은 소파를 사용하였고 가계부 정리 역시 식탁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등 입식이었다. 손님 접대는 양 지역 모두 입식이었는데 양 지역 모두 이웃이나 친구의 접대

장소로 부엌과 거실을 겸용하는 반면 공식손님의 접대는 거실(포말라운지)에서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사진 6). 조사대상 호주 교민의 17사례(32.7%)가 가족식사는 입식으로 그리고 손님접대는 좌식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 캐나다 교민 역시 가족식사는 입식이나 대가족이 모이거나 많은 손님과의 식사 시 8사례(25.0%)는 교자상을 사용하였고 15사례(46.9%)는 입식과 좌식을 겸용하고 있었다. 이는 좌식이 입식에 비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의 대다수 역시 가족식사는 입식 손님접대는 좌식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박선희, 1998; 정무웅, 1988; 조성희, 1996).

연구 결과 양 지역 교민들의 생활은 대부분 입식이었고 공통으로 나타난 좌식은 부엌 바닥에서 김치 벼무리는 작업이었는데 음식 문화의 지속성 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해당 작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5. 각 실별 바닥재와 실내에서의 신발 착탈

1) 각 실별 바닥재

양 지역 조사대상 주택의 바닥재 구성은 〈표 6〉과 같다. 먼저 거실의 경우 조사대상 호주 주택은 전체 카펫이 25사례(48.0%) 그리고 전체 나무가 24사례(46.1%)로 전체 카펫인 경우가 약간 더 높았다(사진 9). 조사대상 캐나다 주택은 거실이 전체 나무가 17사례(53.1%) 그리고 전체 카펫이 15사례(46.9%)로 전체 나무인 경우가 더 높았다. 조사대상 지역인 호주와 캐나다 모두 전통적인 바닥재는 카펫이지만 양 지역의 조사대상자 모두 카펫이 먼지가 많고 깨끗하게 청소하기 어려우며 나무 바닥재가 위생적이고 심미 면에서도 좋다고 평가하였다. 침실의 경우 조사대상 호주 주택은 33사례(63.5%)가 카펫이었고 조사대상 캐나다 주택 역시 카펫이 29사례(90.6%)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취침 공간은 따뜻한 바닥재가 요구되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조사대상 호주 주택 중 7사례(13.5%)가 전체 바닥재를 카펫에서 나무로 교체

〈표 6〉 각 실별 바닥재 구성

바닥재료	공간별		거실f(%)		침실f(%)		부엌f(%)		식사공간f(%)		욕실f(%)	
	호주	캐나다	호주	캐나다								
전체카펫	25(48.0)	15(46.9)	33(63.5)	29(90.6)	·	·	4(7.7)	3(9.4)	·	·	·	·
전체 나무	24(46.3)	17(53.1)	15(28.8)	3(9.4)	17(32.7)	8(25.0)	20(38.5)	9(28.1)	·	4(12.5)	·	4(12.5)
타일	2(3.8)	·	·	·	23(44.3)	12(37.5)	19(36.5)	11(34.4)	47(90.5)	18(56.3)	·	·
리놀륨	1(1.9)	·	·	·	7(13.5)	12(37.5)	7(13.5)	9(28.1)	2(3.8)	10(31.2)	·	·
돌(대리석)	·	·	·	·	2(3.8)	·	1(1.9)	·	2(3.8)	·	·	·
비닐장판	·	·	·	·	1(1.9)	·	1(1.9)	·	·	·	·	·
콜크타일	·	·	·	·	2(3.8)	·	·	·	·	·	·	·
카펫 + 나무	·	·	4(7.7)	·	·	·	·	·	·	·	·	·
비닐장판 + 타일	·	·	·	·	·	·	·	·	·	1(1.9)	·	·
계	52(100)	32(100)	52(100)	32(100)	52(100)	32(100)	52(100)	32(100)	52(100)	32(100)	52(100)	32(100)

하였으며 조사대상 캐나다 주택은 13사례(40.6%)가 거실과 가족실의 바닥재를 카펫에서 나무로 교체하였다(사진 10)。

카펫 사용에 대한 만족 정도는 양 지역 모두 평균 2.6점으로 만족 정도가 낮았다. 카펫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힘든 것이 가장 큰 이유였는데 이는 이들의 생활에서 좌식이 차지하는 비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들 역시 실내 바닥재로서 카펫보다 목재를 선호함이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서 보고된 바 있다(박선희, 2003; 이도영, 1998; 이영심, 2006; 정무웅, 1988). 우리나라에서도 실내 바닥재는 신발을 벗고 지내는 관습을 고려해 자연 소재가 바람직하며 카펫은 소음 발생 부위에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결과(김수진, 1999)가 있으며 우리나라나 아파트 거주자에게 만족과 선호 정도가 높은 바닥재는 질감이 좋고 건강에도 좋은 목재임을 보고한 바 있다(권오정, 전계원, 1995). 조사대상 호주 교민의 경우 14사례(26.9%)가 카펫 대신 나무 바닥재로의 교체를 희망하였고 조

사대상 캐나다 교민의 경우 14사례(43.8%)가 모든 공간을 나무 바닥재로 바꾸기를 희망하였다. 부엌은 조사대상 호주 주택의 경우 타일이 23사례(44.2%)로 가장 많았으며 식사 공간의 바닥재는 20사례(38.5%)가 나무였다. 조사대상 캐나다 주택의 부엌 바닥재는 타일과 리놀륨이 각각 37.5%(12사례)였으며 식사 공간은 타일이 34.4%(11사례)였다. 욕실은 양 지역 모두 타일이 가장 많았다.

연구 결과 양 지역 모두 전통적인 바닥재로 사용해 온 카펫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만족 정도가 높지 않았고 나무 바닥재에 대한 선호 정도가 높았는데 이는 주생활의 일정 부분이 좌식인 것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사료된다. 조사 대상 지역인 호주와 캐나다의 현지인들은 나무 바닥재를 사용하는 경우에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점차 높아지는 건강에 대한 관심과 함께 다(多)문화권에서의 주거문화의 교류와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사진 9〉 다이닝 룸의 카펫 바닥재의 예(호주 J씨 댁)



〈사진 10〉 호주교민 주택의 침실과 거실에 마루를 깨는 모습(호주 K씨의 작업)



〈사진 11〉 현관에 신발장을 설치한 예(호주 J씨댁)



〈사진 12〉 차고에 신발장을 설치한 예(캐나다 Y씨댁)

2) 실내에서의 신발 착탈

조사대상 호주 교민의 50사례(96.2%) 그리고 모든 조사대상 캐나다 교민이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였으며 그 이유는 실내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것은 해외거주 교민의 대부분이 지키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박선희, 2003; 이도영, 1998; 이영심, 2006; 이희봉, 1998; 정무웅, 1988; 조성희, 1996). 조사대상 호주 교민은 현관 안쪽(17사례:32.7%)과 현관 밖(5사례:9.6%) 그리고 주택 내 복도(3사례:5.8%)에 신발장을 두었으며 조사대상 캐나다 교민의 22사례(68.8%)는 현관 안쪽과 지하실에 신발장을 두고 있었다(사진 11)〈사진 12〉. 서양식으로 웃장 안에 신발을 수납하는 경우는 조사대상 호주 교민 중 13사례(25%) 그리고 조사대상 캐나다 교민 중 9사례(28.1%)가 있었다. 조사대상 호주 교민의 45사례(86.5%) 그리고 조사대상 캐나다 교민의 24사례(75%)가 실내에서 슬리퍼를 착용하였으며 이유는 발의 보온을 위한 것이었다.

조사대상 호주 교민 중 32사례(61.5%)가 호주인의 방문 시 신발을 벗을 것을 요구하였으며 대부분 이에 응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대상 캐나다 교민은 10사례(31.3%)가 캐나다인의 방문 시 신발을 벗을 것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조사대상 캐나다 교민 중 20사례(62.5%)가 요구하기 이전에 캐나다인들이 먼저 신발을 벗는다고 답하였다.¹⁰⁾ 연구 결과 양 지역의 교민 모두에게 신발장이 필수 요소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조사대상 지역인 호주와 캐나다의 주택은 실내에서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신발 착탈을 위한 공간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양 지역의 교민들이 신발장을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은 타(他)주거 환경에서 관습적인 주거문화를 지속하기 위한 조절과 변형의 예로서 간주할 수 있다. 조사대상 지역인 호주와 캐나다는 다양한 문화권이 존재하는 곳으로서 서로 다른 문화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각기 다른 관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이는 주택계획의 변화까지 예측할 수 있게 한다.

6. 조사대상 주택의 난방방식

조사대상 호주 주택과 캐나다 주택의 난방방식은 〈표 7〉과 같다. 조사대상 호주 주택의 난방방식은 덕터드 히팅(ducted heating)이 35사례(67.3%)로 가장 많았고 조사대상 캐나다 주택은 모두 온풍난방(furnace air heating)이었다. 덕터드 히팅과 온풍 난방은 공기를 뜨겁게 가열하여 공급하는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사진 13). 난방방식에 대한 만족 정도는 조사대상 호주 교민은 평균 3.27점으로 그리 높지 않았던 반면 조사대상 캐나다 교민은 평균 4.5점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조사대상 호주 교민들은 덕터드 히팅이 날씨의 변화가 심한 지역 특성에는 적합하나 가열된 공기와 함께 공급되는 먼지가 비위생적이며 뜨거운 공기가 실내를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조사대상

〈표 7〉 난방방식

난방유형	호주 f(%)	캐나다 f(%)
덕터드 히팅(Air Forced Heating)	35(67.3)	28(67.3)
덕터드 히팅 + 벽난로	.	3(15.4)
덕터드 히팅 + 온돌	.	1(5.8)
가스 벽난로	8(15.4)	.
전기 냉·난방 겸용 에어 컨디셔너	3(5.8)	.
하이드로닉 히팅 *	1(1.9)	.
온돌	2(3.8)	.
난방 없음	3(5.8)	.
계	52(100)	32(100)

주. 하이드로닉 히팅(hydronic heating)은 각 실에 라디에이터를 설치하고 온수를 순환시켜 난방하는 방식이다.

¹⁰⁾ 최근 서구인들이 동양 문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것에 익숙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조사대상 캐나다 교민의 반수가 캐나다인들이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한다고 응답함.



〈사진 13〉 욕실의 냉티드 히팅의 열 공급구(캐나다 |씨대)



〈사진 14〉 온돌을 깐 단독주택의 거실 예(호주 P씨대)

캐나다 지역은 겨울의 추위가 매우 심하고 특히 적설량이 많아 스노우 벨트(snow belt)로 부르는 등 극심한 기후 조건 때문에 현재의 온풍난방방식에 대한 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희망하는 난방방식은 조사대상 호주 교민의 39사례(75%) 그리고 조사대상 캐나다 교민의 18사례(56.3%)가 온돌이었다(〈사진 14〉). 그러나 양 지역의 교민 모두 온돌은 별도의 바닥 공사가 필요하며 현지의 일반적인 난방방식이 아닌 온돌이 주택 매매(賣買)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특정 지역의 지배 문화권에서 전통 요소의 도입이 주택의 가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미국거주 교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보고한 바 있다(정무옹, 1988). 이러한 결과는 난방방식에서는 관습에 앞서 실생활에서의 유용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대상 호주 교민의 39사례(75%) 그리고 조사대상 캐나다 교민의 21사례(65.6%)가 전기장판을 사용하였는데 온돌의 대체용품으로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것은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 역시 마찬가지였다(박선희, 1998; 이현정, 1992). 최근 조사대상 양 지역 현지인들의 바닥 난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주택의 일부에 도입하고 있는 현상은 온돌 보급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앞으로 이에 대한 심층 연구는 조사대상 지역에 적합한 난방방식을 계획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호주와 캐나다에 거주하는 교민의 주공간 사용 및 주생활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우리의 주거문화에서 전통으로서 지속성이 강한 요소 그리고 타 문화와의 교류를 통하여 변형 혹은 적용이 가능한 주거요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호주와 캐나다 지역 교민의 주공간 사용과 주생활을 분

석한 결과 그 내용을 이들의 생활에서 공통적으로 관습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 타(他) 문화 속에서의 조절과 변형이 이루어진 부분 그리고 타 문화에 적응하여 동화된 부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먼저 이들의 주생활에서 관습이 지속되는 예로 첫째,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것 둘째, 가사 작업의 일부와 손님 접대 등을 좌식으로 하는 것 등이었다. 이들의 좌식 생활은 호주와 캐나다의 전통적인 바닥재인 카펫에 대한 만족 정도가 높지 않았던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점에서 양 지역 모두 나무 바닥재가 좌식과 입식의 겸용에 보다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셋째, 조사대상 호주 교민과 캐나다 교민이 특정한 주거 공간을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이들의 생활에서 관습적인 주생활 요소로서 파악되었다.

한편, 타 문화 속에서 관습을 지속하기 위한 조절의 예로는 신발 착탈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신발장을 일정 공간에 두고 사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주거 환경에 따라 전통의 관습이 변화한 예로는 첫째, 양 지역의 조사대상 교민 모두 세탁실을 필수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이었는데 이들은 손세탁조를 기본 설비로 요구하면서 세탁실을 다림질이 가능한 다목적 가사 공간/utility room으로 계획할 것을 요구하였다. 둘째는 양 지역의 조사대상 교민 모두 욕실의 배수구를 필수 요소로 인식하지 않는 점이었다. 또한 의식면에서는 관습이 남아있으나 현실의 필요성과 유용성이 우선되는 요소로는 난방방식을 들 수 있다. 즉, 양 지역의 조사대상 교민은 온돌을 선호하였고 이상적인 난방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용성 면에서 그 사용 가치가 낮다고 평가하였다. 앞으로 난방방식은 조사대상 지역의 기후 조건과 선호 정도를 고려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 호주 교민과 캐나다 교민의 주생활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었던 점은 첫째, 부엌, 식사실, 거실의 연결 유형이었다. 즉, 조사대상 호주 교민은 부엌이 타 공간에서 분리된 형태를 가장 선호한 반면 조사대상 캐나다 교민은 부엌, 식사실, 거실이 통합된 형태를 선호함으로써 조사대상 캐나다

교민이 오픈 플랜에 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온풍난방방식에 대한 만족 정도에 차이를 보였는데 조사대상 호주 교민에 비하여 조사대상 캐나다 교민이 온풍난방에 대한 만족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나 조사대상 캐나다 교민의 현지 난방방식에 대한 적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 다.셋째, 조사대상 캐나다 교민이 주택 공간의 용도를 변경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평가되어 이들이 조사대상 호주 교민에 비하여 서구식 주공간의 사용 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으로 본 연구를 토대로 조사대상 지역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그 연구 대상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다양한 문화권에서의 주거문화의 지속 혹은 변화하는 정도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각기 다른 문화권에 속해 있는 다양한 집단의 주거문화에 관한 연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계획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다양한 주거문화를 포괄할 수 있는 주거계획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오정, 전계원(1999). 아파트 거실 바닥재에 대한 선호와 만족도. *한국주거학회지*, 10(2), 223~234.
- 김수현(1999). 아파트 단위평면의 유형별 특성분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선희(2003). 캐나다 교민의 주거아이덴티티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4(3), 109~118.
- 배정민, 정유선, 윤정숙(2001). 민영아파트 평면계획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2(2), 1~12.
- 아모스 라포포트(1985). 주거형태와 문화 (이규목 역). 서울: 열화당.(일본 출판 1960).
- 이도영(1998). 미국내 한인주민가정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조절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8), 31~40.
- 이영심(2006). 호주인과 호주교민의 주공간 사용 및 주생활을 통한 주거문화 비교에 관한 연구 -멜버른(Melbourne)을 중심으로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59~179.
- 이현정(1992). 재미교포의 주거아이덴티티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봉(1998). 재미교포 주거건축을 통한 사용자 문화 현장 연구: 광역 아틀란타 시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11), 103~114.
- 정무웅(1988). 건축문화와 전통성에 관한 연구: 환경변화에 따른 공간적응성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논문집* 22, 101~117.
- 조성희(1996). 문화접변에 따른 주양식의 지속과 변용에 관한 행태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9), 79~91.
- Aragones, Francescato and Garling(2002): *Residential environments: Choice, satisfaction, and behavior*. Westport, CT: Bergin & Garvey.
- City of Kitchner(2005). *Community Profile*, Kitchner, Ontario, Canada.
- Hyung-Jeong Lee, & Kathleen Parrott(2004), *Cultural Background and Housing Satisfaction*. *Journal of Housing and Society*. 31(2). 145-158.
- Melbourne in Fact 2001(2003). *2001 Census Statistics for local Government Areas*. Department of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
- Ritsuko Ozaki(2002). Housing as a reflection of Culture: Privatised living and privacy in England and Japan. *Housing studies*, 17(2), 209-227.
- Roderick J. Lawrence(1982). Domestic space and society: A cross-cultural study.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24(1), 104-130.
- Status Australia, 2001 Census.
- Status Canada, 2001 Census.
- WonPil Kim, & KiHyun Lee(2003). A-Cross-Cultural Comparative study on the Personalization of living space through childhood emotional experience.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5(1), 1~8.

(2007년 10월 1일 접수, 2007년 12월 5일 채택)